

한국 정치지리학과 인문지리학 일반 50년의 회고와 전망

임 덕 순*

1945년 8월 광복을 맞았을 당시 국내 정치지리학은 사실상 그 존재를 말할 형편이 못 되었다. 미군 정 기간중인 1947년 초에야 非地理學者 表文化가 『조선 지정학 개관: 조선의 과거 현재와 장래』를 출간했을 정도였다. 국내 지리학자로서 최초의 정치지리학 체계서를 써낸 사람은 崔福鉉이었다. 그의 정치지리학(1959)은 당시 미국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다. 형기주는 국내서 지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정치지리학 논문(국토 통일 가능성)을 쓴 사람이다.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국내 정치지리학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김대경, 차윤, 임덕순 등에 의해서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도 연구 활기는 지속되었는데 특히 同年代 초반에 해방후 국내 지리학 수업자에 의한 최초의 정치지리학 체계서(임덕순)가 나온 점은 특기할 만하다. 1980년대 중반에는 양적으로 보아 정치지리학이 크게 발전한 시기이다. 박사학위 논문도 최초로 나왔고 석사학위 논문도 이후 다수 나왔다. 쏠기간에 걸쳐 볼 때 정치지리 연구는 ① 首都, ② 행정구역, ③ 地政的 구조(특히 한반도), ④ 분단-통일, ⑤ 각급 행정수도, ⑥ 성곽, ⑦ 선거, ⑧ 도시정치 順의 8대 범주에 걸쳐서 크게 이루어졌다.

한국의 정치지리학은 국내 문제와 관련, ① 국토통일, ② 3면 임해의 활용, ③ 영호남 불통합의 3대 과제에 연구를 더 기울여야 한다. 학문 자체와 관련해서는 ① 신 지정학적 연구, ② 전략-군사지리 연구 등에 크게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문지리학 일반 연구는 『인문지리학』을 써낸 김경성으로부터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 약 20년이 지나고나서 오홍석의 非포괄적이거나 『인문지리학 원리』가 나왔다. 1970년대 중반이후 인문지리의 실증-계량적 분석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런 중에 1980년대 초반에 인문지리학 방법론상 중요한 2개의 대립적 논문(김인의 공간지리학 옹호와 최기엽의 장소이해 옹호)이 나왔다. 그후 방법론상의 논의가 5~6편 나와 오늘에 이르렀다. 『인문지리조사법』교재가 역시 非포괄적이거나 국내 최초로 출간된 것은 1988년(조동규)의 일이다. 포괄성이 훌륭한 인문지리학 체계서의 출간이 절실히 요망된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공간-계량적 입장과 지역-종합-해석적 입장간의 조화와 상호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表文化, 地政學的, 1960년대 중반, 정치지리학, 8대 연구범주, 新 地政學, 군사-전략지리학, 임해성 활용의 연구, 非포괄적 인문지리학, 인문지리학 방법론, 공간지리학, 장소이해.

1. 서 언

제목과 같은 글을 씀에 있어서 먼저 정치지리학을 언급하고 나중에 인문지리학 일반을 다룰 것이다. 대한지리학회 창립 및 광복 30주년 때는 정치지리학의 국내 발전이 미미하여 언급할 형편이 못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 同 50주년을 맞

이하여 정치지리학의 회고와 전망의 글을 쓰게 된 것은 진실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물들이 검토되었다. 연구자의 主 전공이 정치지리학이냐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 내용이 정치지리적인 것으로서 ① 대학 교재 이상의 단행본, ② 전국 차원 지리학 관계 학회지에 실린 논문, ③ 정치지리학 분야 논문을 비교적 자주 실어온 대학 논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문집 및 지리학과(지리전공 포함) 논문집에 실린 논문, ④ 석·박사 논문, ⑤ 기타 중요하다고 본 논문들을 검토 범위에 포함시켰다. 중요 연구물임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은 필자의 역부족의 결과임을 말하여 둔다.

2. 한국 정치지리학 연구 반세기의 회고

1) 해방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1945년 8월 광복을 맞았을 당시 국내 政治地理學은 사실상 그 존재가 언급될 정도가 못되었다. 이 분야 한국인 학자가 없었다. 日本 학자들에 의해 일본에서 저술·출간한 출간물의 일부가 한반도에 유입되어 읽히고 있었을 정도였다.

미국의 軍政 期間 中 1947년 초여름에야 겨우 그간에 日書로 정치지리학 내지 地政學 공부를 해온 非地理學者 表文化(表海雲: 국학大 및 중앙女大 교수; 수산경제학, 후에 동국大 교수)에 의해서 한반도를 地政學的으로 논의한 단행본인 「朝鮮 地政學 概觀: 조선의 과거·현재와 장래」(1947)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한반도의 陸海二重性, 위치 관련의 완충국적인 韓國史 전개 등에서 그 논의가 돋보인다. 국내 최초의 정치지리학 단행본이면서 그 논리 전개가 당시로서는 훌륭한 것이어서 이 책은 한국 정치지리학사상 중요한 자리를 계속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본다.

표문화는 다시 1955년에 대학용 체계적 개론서인 「政治地理學 概要: 地政學的 고찰」과 1960년 “지정학상으로 본 外交國防 문제: 우리 나라의 지리적 조건을 중심하여”(上·下)라는 논문을 당시 東亞日報(10.18~10.19)에 발표한 바 있다. 위 대학용 개론서는 日本人 학자 米倉二郎과 飯本信之의 저술에 힘입은 바 큰 저서였거니와 그는 시종 <지정학적> 시각에서 정치지리학의 체계를 꾸미고 그런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한국의 외교 진로를 제시했던 것이다.

한편 地理學者로서 정치지리학에 종사한 사람은 서울大 師大 교수 崔福鉉이었다. 그는 경제지리학도 가르치면서 1959년에 同校 地理科 교재용으로 「政治地理學」(유인물 형태)을 펴냈다. 同學間의 성격·연구 방법, 발달 과정, 지정학과의

관계, 국가론 등 정치지리학 기초 지식 및 이론, 세계 주요 지역의 공간 변화, 지리적 환경과 국가 발전과의 관계 등을 위 책 속에 체계적으로 담았는데, 그가 아주 크게 참고한 책은 미국 학자 Valkenburg, S. V.의 Elements of Political Geography(1942)였다. 최복현의 위 책을 통해서 일부나마 서구식(미국식) 정치지리학이 비로소 국내에 전파되게 되었다.

1962년 洪始煥은 당시 陸士 교수로 있으면서 재직 학교 특성에 맞게 「國防地理」를 출간하였다. 그리고 1966년에는 소련의 전략지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1963년 邢基柱(공주師大)는 “국토 統一: 지정학상의 可能性”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은 해방 후 국내에서의 지리학 전공자(서울 사대에서 최복현 교수 등에게 배움)에 의해서 맨 처음 쓰여진 글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당시로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세계 地戰略(global geostrategy) 개념들의 일부를 원용해가면서 쓴 글이라는 점에서 역시 주목되는 업적이다. 그러나 그는 후에 경제지리학 쪽에 주로 종사하였다. 1964년에는 李聖學이 국토 방어용 성곽과 관련 “한국의 성곽 小考”를 발표하였다.

2) 1960년대 중반~1980년대 前半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전술한 초기와는 다르게 국내 정치지리학이 그전과 비교해서 크게 꿈틀거리기 시작하였다.

1967년 金大經(전주교대)의 한국 국경 및 국가에 관한 연구가 나오고 1968년에는 非地理學者인 洪鍾赫(洪聖恩)의 저서 「政治地理學: 지정학적 고찰」과 李琦錫의 경기도 舊郡都(구읍)연구가 나왔다. 홍종혁의 저서는 세계 地戰略 이론들을 국내에 최초로 체계적으로 알려준 책이다. 그는 同書を 만들면서 미국서 정치지리학을 공부하여 석사 학위를 받은 車胤의 자료도움을 받아 미국식 내용 전개를 상당히 고려했던 것이다.

또한 1968~69년에는 車胤과 任德淳의 논문이 비교적 자주 등장하였다. 당시 미국 매릴랜드大 한국분교 교수로 있던 차윤은 당시로서는 최신의 감각을 담은 연재글 “지정학 강의”(1968~71)를 논술하였고 1970년대 한반도의 地政的 구조에

관한 논문(1969)을 발표하였다. 국내 최초로 정치지리 연구에 의한 석사 학위를 받은 임덕순(부산敎大)은 미국식의 기능주의적 연구인 한국의 정치적 공간 변화(1969)를 내놓았다. 차윤과 임덕순은 또한 1969년에 「政經研究」에서 70년대 한국의 지정학적 구조, 변연지역 이론의 한반도 적용상의 문제 등 5개의 논쟁문을 통해 이른바 〈地政學 논쟁〉을 벌인 바 있다(이 논쟁문들은 1976년에 「韓國論爭史(III)」에 재록됨). 「정경연구」誌를 통한 위와 같은 논쟁과 차윤의 지정학에 관한 글들은 현대적 지정학 내지 정치지리학이 무엇을 다루며 응용 면에서는 어떤 부분에 공헌할 수 있는가를 특히 정치학 및 국제정치학계에 다소간 보여주는 구실을 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위와 같은 정도의 연구 활기가 지속되었다. 즉 70년대 초반에 李聖學의 한국 행정구역의 역사적 연구(1971), 임덕순의 한국 휴전선(1972), 독도의 소속 및 기능(1972), 東南亞 국제 정치의 지역적 구조 연구(1973), 제2차 대전 후 영 미식 정치지리학의 영향을 받은 체계적 저서인 「정치지리학 원론」(1973) 출간, 차윤의 위치 기초의 한반도 안전보장(1972), 한국 통일 연구(1972), 石成岳(석박사 학위는 정치학 쪽)의 首都의 국민 결속 기능에 관한 이론적 검토(1973) 등이 나왔다.

70년대 초반까지는 위와 같고 그 중반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의 주요 업적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임덕순, 부산의 정치지리 연구(1974)
- 남기창, 한반도의 정치지리적 구조 연구(1975)
- 김인, 미국 연방정부 세출費의 지리학적 연구(1975)
- 최영준, 조선시대 서울 상주 정치적 大路 연구(1975)
- 임덕순, 서울의 首都類型(1976), 정치지리학 발달사 연구(1976)
- 김광채, 하우스호퍼의 지정학 사상 연구(1977)
- 도병권, 조선 말 한반도의 지정적 정세 연구(1977)

- 김원경, 군급 행정구역의 구조 연구(1979)
- 김부성, 3·1 운동 확산 연구(1979)
- 김인, 한국 新首都의 입지 문제 논구(1979)
- 이수성, 일제의 對韓 식민지 정책의 토지·인구에의 영향 연구(1979)
- 석성악, 수도의 정치 발전상의 기능 연구(1979)

위의 소개를 보면 1970년대 後半에는 수도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前半에 들어서서도 1970년대의 활기는 그대로 지속되었다. 특히 연구의 〈범주화〉가 이때부터 크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행정구역, 首都, 각급 행정수도(道都 및 郡都) 등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졌는 바, 이성학의 옛 縣(1980), 행정구역 접촉성(1980), 옛 郡(1982), 元慶烈의 경상도 행정구역(1983) 등 행정구역 연구, 임덕순의 수도의 결속 기능(1982), 수도 연구 방법론(1983), 조선의 수도 선정(1984) 등 수도 연구, 그리고 崔昌祚의 조선의 郡都입지(1982), 南基漢의 경기도 군도 변모(1982), 이성학의 옛 郡縣都 치폐 연구(1984)가 그 실예이다. 그 외에 광복 후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온 한반도의 위치 관련 정치지리적(지정적) 구조에 관한 연구의 하나로서 權忠熙의 한반도 지정적 구조 연구(1980)를 비롯, 洪慶姬(外)의 도시재정(1981), 이준선의 방어성곽(1980), 강릉 고대산성(1982), 朴寬燮의 古土 만주 간도 연구(1983), 임덕순의 한국 정치지리학의 과제 논의(1983)를 들 수 있다.

3) 1980년대 後半~오늘날: 최근의 연구 업적

1985년 한해는 연구물이 쏟아져 나온 해이다. 국내 최초의 정치지리 연구 박사 학위 논문(임덕순)도 이 해에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 석사 학위 논문도 다수 출현되었다. 이런 점들 외에 1985년이 오늘 현재 기준으로 10년 전(즉 최근)이라는 점이 〈1985년 이후 오늘날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기간으로 설정하게 된 근거가 된다.

1980년대 前半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범주화〉는 이 기간에 들어와서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졌

표 1. 국내 정치지리학 8대 연구범주 (1945~1995.6.)

()안은 연구자수

범주	수도	행정구역	지정적 구조(한반도)	분단·통일(독일포함)	각급 행정수도	성곽	선거	도시정치
연구수	16(8)	11(7(外))	9(7)	8(5)	6(6)	6(5)	4(4)	4(3)
비고	1970년대 후반 이후 활발	1980년 이후 활발		1990년 이후 활발			1980년대 후반 이후 활발	1980년대 종반 이후 활발

다. 즉 수도, 국토 통일, 행정구역, 도시정치, 선거, 각급 행정수도, 성곽 연구 등으로의 범주화가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 대상의 다양화라는 점과 함께 광복 이후의 한국 정치지리학의 <몇 가지 전통>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어주었다.

수도 연구에 있어서는 정치지리학에서의 수도 연구 重視가 그간 국내외에서 고조되어 온데다가 서울 천도 600년을 얼마 앞에 두고 있어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 졌다. 임덕순의 서울의 수도 기원과 발전 과정(1985), 단행본 「600년 수도 서울」(1994), 조선 수도 한성의 상징화(1994), 형기주의 역사적 古首都 조성안(1985), 수도 조성과 상징주의와의 관계(1985), 이성학의 한국 고대 수도의 역사지리(1986), 최영준의 조선 수도의 郊(1989), 이몽일의 조선왕궁 및 일제 총독부 청사의 위치 관계(1992), 박해옥의 백제 수도(사비) 조성안 연구(1992)가 그것이다.

통일 연구에 있어서는(시의상 주로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지만) 임덕순의 양독 통일 동태(1990), 한국 통일 가능성(1993), 김재한의 독한 통일 차이(1991), 남북 통일 지향(1994), 류우익의 한국 통일과 통일 국토의 개편(1995)을 주목할 만하다. 이들 연구는 물론 1990년 가을의 냉전 체제 붕괴, 남북한 간 관계개선 회구-조짐, 우리의 통일 염원 등에 영향받은 것이다.

행정구역 연구에 있어서는 이성학의 한국 특수 행정구역의 지역성(1985), 서태열의 서울 學群(1987), 김영성(외)의 한국 행정구역 개편(1991), 양보경의 조선 초 서울의 행정구역(1994), 임석희의 행정구역 체제 연구(1994)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들어와서의 연구들은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에 자극받은 연구들이

었다.

도시정치 연구의 필요성은 1974년 국내에서 역간(임덕순)된 미국책 「정치적 지리학」(Jackson, W. A. D. 外: 1973)에 의해 알려진 바 있지만 그 국내 연구가 이 시기에 와서 활기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내용을 보면 소진광의 도시재정(1987), 고태경의 도시 재구조와 정치경제와의 관계(1989), 도시 재개발의 정치(1994), 박선미의 도심 재개발의 정치경제(1993)가 이 시기에 나왔다. 특히 도시정치 연구가 성한 미국서 공부한 고태경의 연구가 돋보이고, 그는 이후에도 이 분야 연구에 정진하리라고 기대된다.

선거 연구에 있어서는 1986년 이 부분 국내 최초의 석사 논문으로 이진욱이 내놓은 국회의원 선거 연구(1986)를 필두로 역시 김성준의 국회의원 선거(1988), 김형국의 대통령 선거(1990), 역시 조중흠의 대통령 선거 연구(1991)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연구가 모두 계량적 방법(경향면 분석, 인자 분석 등)에 의한 연구였다. 선거지리 연구는 정치학계에서도 큰 관심대상인 바, 우리의 장점은 적절한 地圖化와 그간에 쌓인 계량적 분석 방법에 있다. 우리가 게으르면 정치학자들에게 크게 침식당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본다.

각급 행정수도 연구에 있어서는 유취상의 전라도 폐현도(1985), 손명철의 경북 道都위치 선정(1986), 이영민의 옛 郡都 연구(1991)가 이루어 졌다.

성곽 연구에 있어서는 윤성주의 전주성곽(1985), 이재혁의 해안성곽(1986), 이기석의 몽촌토성 연구(1988) 등이 나옴으로써 하나의 범주를 이루어가는 데 이바지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 나온 그 외의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임재근, 소련 해군전략 연구(1985)
- 최영준, 조선 시대 남한강 징세수로 연구(1987)
- 최병두, 권력, 공간, 역사 간의 관계 논구(1987)
- 임덕순, 「정치지리학 원리」(기존 「정치지리학 원론」(1973)의 대폭 개편)(1989)
- 주현순(외), 한국 휴전선 인접지역 연구(1989)
- 이정록, 수세 거부 운동의 확산 연구(1990)
- 임덕순, 정치지리학적 시각의 동해 지명 논구(1992)
- 김두일, 남한 최적 방어지 선정 연구(1993)
- 류우익, 동북 아시아 주변(rim) 논구(1993)
- 고태경, 공간 경제에의 국가 간섭 논구(1994)

이상에서 광복 후 오늘날까지 3 기간을 설정하여 각 기간의 연구 성향을 살펴 보았다. 이제 그 간의 모든 연구를 양적으로 종합한 결과를 가지고 한국 정치지리학의 8대 연구범주를 表와 같이 제시해 본다. 그 8대 연구범주는 일단 국내 정치지리 연구의 8대 전통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치지리학에 있어서의 향후 연구과제와 전망

이제 오늘날까지의 연구 업적을 고려한 가운데 연구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1) 한국적 상황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는 3가지 연구과제를 들고 싶다. 첫째, 알다시피 한국은 제2차 대전 후의 분단국이다. 그 분단을 해소하여 재통일에 이르는 일은 국가적 및 민족적 대과제이다. 정치지리학자는 학문적으로 그 재통일에 이르는 길을 연구 제시해야 한다. 국내 정치지리학은 국토 재통일 연구에 전보다 더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 내 조건, 북한 내 조건, 남북한간 조건, 남북한을 둘러싼 주위열강의 조건들을 모두 서두르지

않는 가운데 <차분히> 조사 분석하여 재통일에 이르는 일에 이바지 해야한다. 전망컨데 통일 연구는 우리 학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보다 활기 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한반도는 최대 대륙인 유라시아와 최대 대양인 태평양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3면 임해의 반도이다. 바다와 육지를 통해 그 양방으로 진출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는 경제적으로 급 성장하고 있는 중국, 세계 경제 수위급의 일본, 경제적으로 개편적 발전에 애쓰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서서히 개방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태평양 건너에는 한반도에 이해 관계를 깊게 지니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일원인 미국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정부와 국민은 이러한 우리의 지리적 위치를 보다 더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남한은 이러한 조건들을 이용하여 육해 양방으로의 경제 진출을 적극화하고 우리의 경제력 및 바다 관련 사업 수준을 기초로 해양세력(sea power) 國家化에 힘써야 한다. 이에 관한 연구를 응용 정치지리학 내지 <新>지정학이 떠맡아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부분 연구가 필요에 비해 아직은 미미한 형편에 있다.

셋째, 1960년대 이후 역대 선거(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잘 나타나왔듯이 남한에는 영호남 간 등에 엄연한 지역적 갈등(심한 경우 지역적 적대감)이 존재한다. 이 사회적 불통합(social disintegration)은 국가 발전에 큰 장애인 바 그의 해소를 위한 보다 더 신뢰성 있는 기초적 및 응용적(해결지향적)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현재로서는 깊은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사회학, 정치학 등 인접학문 쪽에서의 정치지리학 쪽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간 간혹 그들의 요구(기초 강연, 토론)가 있어 왔는 바 이 부분 연구도 정치지리학의 실용성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다.

2) 정치지리학의 자체 발전 도모와 관련해서

이에 관련해서는 큰 것 두 가지만 거론코자 한다. 첫째, 정치지리학 선진국들, 가령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중요하게 연구되는 대상은 국내에서도 주목되고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는 정치지리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하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 1960년대 후반 이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오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위상이 크게 높아진 地政學과 소위 <새로운> 지정학(new geopolitics), 그리고 최근의 지정학적 연구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치시대 침략 정당화 도구로 많이 쓰인 <기본 나쁜> 지정학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국제 문제를 실효성 있게 푸는 응용학으로서의 지정학 연구가 우리에게 제서도 활기차면서도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지리적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이 분야의 학문적 활성화는 필요하다. 지정학에 대한 인식이 건전해지는 가운데 좀더 긍정화 되면 연구가 활기있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된다.

둘째, 국가 제1의 목표인 국토 보전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보전을 위해서는 군사력 및 전투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응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지리학에서는 전략지리(strategic geography), 군사지리, 전술지리(tactical geography) 등의 연구가 활기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특히 국방대학원과 3군 각 사관학교의 교수들이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일반대학의 정치지리학자 일부도 힘을 써야한다고 본다. 한때 육군사관학교 교수나 동지리학 교수실서 비교적 크게 관심을 갖은 적이 있으나 요즘은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다. 재흥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수도 및 각급 행정수도, 행정구역, 선거 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4. 人文地理學 일반의 회고와 전망

1) 인문지리학 일반의 연구 반세기 회고

인문지리학 일반에 대해 씬에 있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물들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인문지리학 각 분야는 해당 분야 회고와 전망에서 논의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인문지리...” 표현이 붙은 것과 내용이 인문지리학 <일반적>인 것으로서 대학 교재 이상의 단행본과 논문들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논문들의 선정 기준은 정치지리학

경우에서 사용한 것과 같다.

광복 이후 국내 학자에 의해 최초로 저술된 인문지리학서는 1963년에 나온 金庚星의 「人文地理學」이다. 그 전에 고교 교과서로 「인문지리」가 쓰인 적은 있었어도 대학교재로 출간된 것은 이것이 최초이다. 인문지리학의 대상 문제, 자연환경, 경제 지역, 교통, 상업, 인구, 취락, 문화 지역, 국가 국제문제, 지리학 응용의 10개 주제를 다룬 포괄성 있는 저서이나, 1950년대 후반에 쓰인 「고교 인문지리」 교과서와 다루어진 주제들은 비슷하고 내용 깊이는 약간 깊은 것이었다. 당시 학문상황으로 볼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개론서라고 볼 수 있다.

약 20년이 지난 후 1982년에 오홍석의 「인문지리학 원리」가 나왔다. 저자가 촌락지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얼마 후에 자료를 정리하여 내놓은 것이어서 깊이는 있으나 인문지리학의 이름을 붙이는 데 있어서는 포괄성이 결여되어 아쉬움을 주는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인구, 경제, 취락 분야만을 다루었던 것이다. 이 책은 최근(1992)에 「인문현상의 지역차와 다양성」으로 개명 개정되어 출간된 바 있으나 다른 주제들은 전과 같다. 사실상 오홍석의 저서(1982)가 나오기 전까지는 英國 Jones, E.의 저서(1966)로서 국내 역간(이찬 권혁재 총역, 1973)된 「人文地理學 原理」가 번역서이지만 국내 유일한 인문지리학서 구실을 하였다. 同書는 인종, 인구, 식료, 촌락, 도시, 광공업, 교통을 非계량적으로, 다시 말해서 역사 — 해석적으로 다룬 책이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국내에서 그간 하나의 유행처럼 행해오던 실증 — 계량적 분석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입에서 입으로 크게 일어나 왔는데, 그런 가운데 1983년에 인문지리학의 본질-방법론에 관한 중요한 2개의 논문이 동시에 나왔다. 하나는 金仁의 지리학(인문지리학)의 패러다임론이요 다른 하나는 崔基燁의 장소이해론이다.

김인은 지리학의 패러다임으로 4 분야를 들고 그것을 다시 2대 분야, 즉 인식론 바탕의 地域지리학과 실증론 바탕의 공간지리학으로 압축하면서, 공간지리학은 지리학의 새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지리학으로 대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기업은 同一 논문집에 실린 글에서 실증주의 지리학에 대한 반성을 전개하면서 구조주의적(구조론적)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場所(지역)의 구조나 경관을 잘 설명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자가 시스템 및 과정을 주목하면서 실증주의적 분석을 중시했다면, 후자는 장소 경관의 의미 해석을 중시하면서 인식주의적이고도 구조주의적인 분석을 강조하였다. 위 두 논문은 당시의 대립되는 두 경향을 보여주는 논의라고 볼 수 있다.

이후에 나온 정진원(1984)의 인간주의 지리학의 이념 방법론과 이회연(1985)의 인간주의 관점에서의 장소론은 둘다 인식론적 내지 구조주의적 또는 해석적(현상학적)지리학의 중요성을 논의한 논문이다. 특히 이회연은 인간주의적 분석이 심층적 이해에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공간은 추상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곳에 사는 인간의 가치·인식이 부여되어 있는 실존적 공간(장소)이기도 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점 재삼 음미해 볼 견해라고 생각된다.

1986년에는 김인에 의해서 실증 — 계량주의를 택한 「人文地理學: 인간과 공간조직」이 저술되었다. 전술한 그의 노선을 기초로 한 체계적 저서였다. 정주체계, 도시 내부구조, 교통망, 농·공업, 쇠퇴(혁신) 등의 계량적 분석을 주로 하고 그 외에 지역발전예 관한 정책 부면을 다루었다. 그런데 그는 1980년에 Tidswell, V.의 Pattern and Process in Human Geography (1976)를 역간한 바 있거니와, 그 역서 내용이 앞의 저서 집필에 참고되었던 것이다. 권용우는 1987년에 현대 인문지리학의 사조를 살핀 바 있는데, 그것은 실증주의적, 인간주의적, 구조주의적 지리학 각각에 대한 검토를 해 보인 것이다.

1988년에 趙東奎(外)는 인문지리 조사의 효율화를 위해서 「인문지리 조사법」을 출간하였다. 토지 이용, 인구, 취락, 농촌, 도시, 교통, 관광, 지역 분석을 주제들로 삼아 각각 조사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는 식의 저서인데, 아쉬운 것은 정치 행정과 문화에 대한 조사 부분이 결여되어 있어서 포괄성이 약한 점이다. 인문지리 조사법 책으로서 최초의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988년에 최병두는 인문지리학 방법론의 새로

운 지평론을 내놓았다. 실증적 지리학을 반성하면서 그 대안으로 인간주의 지리학과 구조주의 지리학을 소개하였고, 인문지리 연구 각 방법론의 여러 가지 단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통합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李玉熙는 1991년에 지리학의 패러다임론을 내놓았다. 기존의 여러 국내외 논자들의 패러다임을 소개하면서, 단일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여러 代案的 패러다임의 공존 불가피성을 말하였다.

이상의 검토에서 주목되는 것은 인문지리학 체계서가 1960년대 초반에서야 나왔다는 점과 1980년대 초반에 국내에서 실증적 지리학과 해석적 지리학의 장단점 논의가 뚜렷해졌고, 그 후 해석적 지리학에 대한 이해 음미 이용의 필요성이 자주 거론되어온 점이다.

2) 향후 과제와 전망

우선 인문지리학의 본질 방법론에 대한 논란 검토가 좀더 진행되리라고 본다. 그러한 가운데 해석적(인식론적, 구조주의적 포함)지리학을 두둔하는 논의가 당분간 더 나올 것으로 본다. 최근의 연구자들이 해석적 지리학에 전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문지리학서 저술에 있어서는 기존 것들이 다 소간에 약점을 안고 있는 바 앞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인구, 촌락, 도시, 사회계층 등), 문화의 4대 분야를 고르게 담은, 즉 포괄성 있는 저서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계량적 일변도나 문헌적 또는 해석적 일변도가 아닌 여러 가지 유용한 분석 방법이 잘 소개되어 있는 인문지리학서가 나와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문 헌

〈政治地理學 관계〉

- 고태경, 1989, "도시 공간 재구조의 정치경제적 고찰", 地理學, 40, 대한지리학회.
 고태경, 1994, "국가 이론과 공간 경제에의 국가 간섭", 대한지리학회지, 29(3).
 고태경, 1994, "자본 재구조화가 도시 발달에

- 미치는 영향: 시카고 정치와 재개발 사업을 사례로 (영문)", 대한지리학회지, 29(4).
- 權忠熙, 1980, 한반도에 대한 地政學的 高찰,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광채, 1977, "갈 하우스호퍼의 지정학 思想에 관한 연구", 지리학 연구, 3, 한국지리교육학회.
- 金大經, 1967, "한국의 정치지리학적 국경선과 국가론", 논문집, 2, 전주교대.
- 김두일, 1993, "GIS 기법을 이용한 최적입지 선정 연구: 서울 동두천 간의 최적 방어 지역 선정", 지리학, 28(2), 대한지리학회.
- 김부성, 1979, "3·1 운동의 공간 확산에 관한 연구", 地理學, 19, 대한지리학회.
- 김성준, 1988, "국회의원 선거결과에의 지역적 경향 분석", 지리교육논집, 19, 서울대 지리교육과.
- 김영성(외), 1991, "한국 행정구역의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지리학 연구, 17, 한국지리교육학회.
- 김원경, 1979, "행정구역의 空間的 구조: 시 군의 경우", 地理學, 19, 대한지리학회.
- 金 仁, 1975, "미국 연방정부 세출비의 지리학 (영문)", 낙산지리, 3, 서울대 지리학과.
- 金 仁, 1979, "新 행정수도의 立地문제", 地理學, 20, 대한지리학회.
- 김재한, 1991, "統獨과 統韓의 차이", 자유인의 원탁, 1, 자유인의 원탁 모임.
- 김재한, 1994, "고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통일 지향적 개선방향 모색", 지리학 논총, 23, 서울대 지리학과.
- 김형국, 1990,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행태에 관한 지정학적 연구", 한국의 선거 정치학 (김광웅 편), 나남, 서울.
- 南기창, 1975, 한반도의 政治地理學的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기한, 1982, "경기 지역에 있어서 郡治 취락의 변모에 관한 연구: 죽산읍을 중심으로", 지역환경, 1, 동국대.
- 도병권, 1977, "지정학적으로 본 조선말의 한반도 정세 연구: 구미 열강국의 정치 경영을 중심으로", 논문집, 14, 청주교대.
- 류우익, 1993, "地政學的 觀點에서 본 동북아권 (동북아 rim) (영문)", 대한지리학회지, 28(4).
- 류우익, 1995, "통일 국토의 공간구조 개편구상", 통일 국토의 미래상과 국토관리 정책(사회과학 연구소 편), 서원대.
- 박관섭, 1983, "만주 및 실지 간도의 역사지리적 고찰", 지리학보, 5, 건국대.
- 박선미, 1993, "도시 공간의 변화에 내재한 정치 경제적 논리의 규명: 서울시 도심 재개발을 대상으로", 地理學, 28(3), 대한지리학회.
- 박해옥, 1992, "백제 사비都城의 토지 구획", 문화역사지리, 4,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서태열, 1987, "서울시 고등학교의 분포와 學群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18, 서울대 지리교육과.
- 石成岳, 1973, 首都의 국가통합 기능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石成岳, 1979, 수도의 정치 발전적 기능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박사학위(정치학) 논문.
- 소진광, 1987, "재정력 분석을 통한 적정 도시 규모에 관한 연구", 지리학 연구, 12, 한국지리교육학회.
- 孫明哲, 1986, "인구 포텐셜과 接近度 분석에 의한 地方 行政中心地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17, 서울대 지리교육과.
- 양보경, 1994, "조선 후기 서울의 인구 및 행정구역", 서울의 景觀 변화(서울학 연구소 편), 서울학 연구소.
- 원경열, 1983, "15·16세기 경상도 행정구역의 지리적 고찰", 논문집, 23, 춘천교대.
- 유취상, 1985, 전라도 폐현의 연혁과 위치에 대한 지리학적 고찰, 전북대 교대원 석사학위 논문.
- 윤성주, 1985, 전주 지방의 성곽에 대한 역사지리학적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李琦錫, 1968, "舊邑 취락에 관한 연구: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지리학, 3, 대한지리학회.
- 李琦錫, 1988, "백제 몽촌토성의 입지특성에 대한 소고", 지리교육논집, 19, 서울대 지리교육과.
- 이몽일, 1992, "경북공과 조선총독부 청사의 풍

- 수지리적 관계”, 이병곤 화갑 기념논집.
- 李聖學, 1964, “한국 성곽 소고”, 합동 논문집, 1. 계명대(외).
- 李聖學, 1971, “한국 行政區域에 관한 역사지리학적 연구(통일신라 시대에 대하여)”, 교육대학원 논문집, 2. 경북대.
- 李聖學, 1980, “행정구역의 縣에 관한 연구”, 논문집, 29. 경북대.
- 李聖學, 1980, “행정 경역의 접촉성 연구”, 논문집, 30. 경북대.
- 李聖學, 1982, “한국 행정구역의 郡에 관한 역사지리”, 논문집, 33. 경북대.
- 李聖學, 1984, “한국 古邑의 치폐 및 명호 승강. 사회과학”, 3. 경북대.
- 李聖學, 1985, “한국 특수 행정구역의 시대적 지역특성”, 사회과학, 4. 경북대.
- 李聖學, 1986, “한국 고대 도읍의 역사지리성”, 사회과학 연구, 2. 경북대.
- 이수성, 1979, “日帝의 對韓 초기 식민지 정책이 한반도의 토지와 인구의 지역적 변화에 미친 영향: 1912-1919”, 지리학논총, 6. 서울대 지리학과.
- 이영민, 1991, “광주의 舊治所 고골에 관한 역사지리적 연구”, 지리학, 26(1), 대한지리학회.
- 이재혁, 1986, 조선시대 충청 해안지역의 성곽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록, 1990, “수세 거부운동의 공간 확산과 지역구조: 1987-1989”, 地理學, 41, 대한지리학회.
- 이준선, 1980, “신라 당항城의 역사지리적 고찰”, 논문집, 8. 관동대.
- 이준선, 1982, “강릉 지역의 고대山城”, 地理學, 25, 대한지리학회.
- 이진욱, 1986, 투표 행태의 지리학적 연구: 우리나라의 8·10·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이화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任德淳, 1969, “한국의 空間 변화에 대한 政治地理學的 연구”, 地理學, 4, 대한지리학회.
- 任德淳, 1969, “변연 지역 이론의 한반도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政經研究, 54, 한국정경연구소.
- 任德淳, 1971, “한국 休戰線에 대한 정치지리학적 연구”, 地理學, 7, 대한지리학회.
- 任德淳, 1972, “獨島의 정치지리학적 고찰”, 연구보고, 8 (1), 부산교대.
- 任德淳, 1973, “동남아 국제정치적 지역적 구조”, 정경연구, 97, 한국정경연구소.
- 任德淳, 1973, 政治地理學 原論, 一志社, 서울
- 任德淳, 1974, “釜山 정치지리의 연구: 지역 정치지리학의 한 시도”, 연구보고, 10(1), 부산교대.
- 任德淳, 1976, “서울의 首都유형 연구”, 연구보고, 12-1, 부산교대.
- 任德淳, 1982, “수도 서울의 결속 기능”, 논문집(인사), 24, 충북대.
- 任德淳, 1984, “한양이 조선 수도로 선정된 이유: 정치지리학적 접근”, 논문집(인사), 27, 충북대.
- 任德淳, 1985, 서울의 首都기원과 발전과정,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任德淳, 1990, “양독 통일화 동태의 정치지리학적 고찰: 관계 열강의 입장과 그 변화를 중심으로”, 地理學, 42, 대한지리학회.
- 任德淳, 1992, “정치지리학적 시각에서 본 東海地名”, 地理學, 27(3), 대한지리학회.
- 任德淳, 1993, “한국의 통일 가능성과 통일 단계: 政治地理學的 견해”, 교원전문과정 연수교과 실라버스 및 교재(한국교원대 연수원 편), 한국교원대.
- 任德淳, 1994, 600년 수도 서울, 지식산업사, 서울.
- 任德淳, 1994, “조선 초기 漢陽定都와 수도의 象徴化”, 서울의 景觀 변화(서울학연구소 편), 서울학연구소.
- 임석희, 1994, “한국 행정구역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의 방향”, 대한지리학회지, 29(1).
- 임재근, 1985, 소련 해군전략의 정치지리학적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중흥, 1991, 한국 대통령 선거 투표의 공간적 분석: 5·6·7·13대 선거를 중심으로, 충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현순(외), “한국 휴전선 인접지역에 대한 지리학적 고찰”, 상명지리, 7, 상명여대 지리학과.

- 차 윤, 1968~71, “地政學 강의”, 靑塔, 8~11, 구미동창회.
- 차 윤, 1969, “70년대 한국의 地政學적 구조”, 政經研究, 52, 한국정경연구소.
- 차 윤, 1972, “한반도의 地政學的 위치와 한국의 안전보장”, 한반도, 11, 월간 한반도사.
- 차 윤, 1972, “한국의 지정학 통일 아이코노그라피”, 성서연구, 217.
- 차 윤 임덕순, 1976, “地政學이란 무엇인가?(논쟁)”, 한국논쟁사(III)(손세일 편), 청람문화사, 서울.
- 최병두, 1987, “역사 권력 공간: 미셸 푸코와 역사지리학”, 지리학 논총, 14, 서울대 지리학과.
- 崔福鉉, 1959, 政治地理學, 서울大 師大 地理科.
- 최영준, 1975, “조선 시대의 영남로 연구: 서울-상주의 경우”, 지리학, 12, 대한지리학회.
- 최영준, 1987, “남한강 水運 연구”, 地理學, 35, 대한지리학회.
- 최영준, 1989, “조선 시대 한양의 郊지역 연구”, 문화역사지리, 1, 한국문화역사지리 연구회.
- 최창조, 1982, “조선기 읍 취락의 입지 유형과 입지요인에 관한 연구”, 사대 논문집, 8, 전북대.
- 表文化(표해운), 1947, 朝鮮地政學概觀: 조선의 과거 현재와 미래, 건국사, 서울.
- 表文化(표해운), 1955, 政治地理學概要: 地政學的의 고찰, 고려출판사, 서울.
- 表文化(표해운), 1960, “地政學상으로 본 外交 문제: 우리나라의 지리적 조건을 중심으로(上下)”, 東亞日報(10.18~10.19).
- 邢基柱, 1963, “國土 統一: 地政學상의 가능성”, 20世紀의 韓國(홍이섭 外 편), 박우사, 서울.
- 邢基柱, 1985, “都城 계획 종교”, 지리학논총, 12, 서울대 지리학과.
- 邢基柱, 1985, “도성 계획과 우주적 상징주의”, 지리학, 32, 대한지리학회.
- 홍경희(外), 1981, “한국 都市財政의 순위 규모 관계”, 교대원 논문집, 13, 경북대.
- 洪始煥, 1962, 國防 地理, 陸軍士官學校.
- 洪始煥, 1966, “地理的 制約소에서 본 소련의 戰略地理 판단”, 논문집, 4, 육군사관학교.
- 洪鍾赫(홍성은), 1968, 政治地理學: 지정학적 고찰, 중앙인쇄공사, 서울.
- 〈人文地理學 일반 관계〉
- 권용우, 1987, “현대 인문지리학의 思潮”, 지리학논총, 14, 서울대 지리학과.
- 金庚星, 人文地理學, 법문사, 서울.
- 김 인, 1983, “지리학에서의 패러다임 이해와 쟁점”, 지리학 논총, 10, 서울대 지리학과.
- 김 인, 1986, 인문지리학: 인간과 공간 조직, 법문사, 서울.
- 오홍석, 1982, 人文地理學 원리, 교학사, 서울.
- 이옥희, 1991, “지리학에서의 패러다임에 대한 소고”, 김연옥 정년퇴임 기념 논집, 이화대 대학원.
- 이희연, 1985, “인간주의적 관점에서의 空間과 장소의 개념 (영문)”, 지역과 환경(홍시환 화갑기념 논집간행회편).
- 정진원, 1984, “인간주의 지리학의 이념과 방법”, 지리학 논총, 11, 서울대 지리학과.
- 조동규(외), 1988, 인문지리 조사법, 교학연구사, 서울.
- 최기엽, 1983, “場所의 이해와 상징적 공간의 독해”, 지리학 논총, 10, 서울대 지리학과.
- 최병두, 1988, “인문지리학 방법론의 새로운 지평”, 지리학, 38, 대한지리학회.

Retrospect and Prospect of Political Geography and General-synoptic Part of Human Geography in Korea

Duck-Soon Im*

Summary

1. Retrospect of Political Geographic Studies since Liberation, 1945

1) Period from 1945 to mid 1960s

There was not political geography as a science in Korea at the time of liberation from Japan, 1945. At that time were not pure political geographers in Korea. In 1947, Moon-Hwa Pyo, economics professor, published a book titled *Outline of Korean Geopolitics*. This book was a first one in the field of political geography and available at that time in the logical descriptions.

Bok-Hyon Choi was a first political geographer, who in 1959 wrote a book titled *Political geography* for the collegian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Choi introduced American-style political geography through the book above mentioned. In 1963, Kie-Joo Hyong published an article titled "Korean Unification: Possibility from the Geopolitical Viewpoint" which was a first article published by Korean young scholar who studied geography in this country.

2) Period from late 1960s to late 1980s

Both Yoon Cha and Duck-Soon Im published frequently several articles of political geography or geopolitics respectively in 1968-1969. And they issued geopolitical disputes on Korean geopolitical structure and an application of rimland theory to Korean peninsula in 1969 through a magazine named *Joung-Kyong Younku* (th political and economic researches). The disputes played an important role of showing political geography (or geopolitics) to political sciences especiall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ctive researches still continued in 1970s. In that atmosphere, the first Korean book of political geography written by a post-liberation scholar (Duck-Soon Im) titled *Principles of Political Geography* was published in 1973. This book was influenced much by American political geography after Second World War.

In 1980s, the researches continued more actively. Especially administrative districts, capital cities, and sub-capital cities were frequently studied during this period.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3) Period from late 1980s to Present: Recent Studies

1985 was a year of much production of articles of political geography. The first Ph. D thesis of political geography published in the same year in our country. And since 1985 produced many M. A articles. Several categories of researches of political geography was made in the period from late 1980s to present. Capital cities, Korean unification, administrative districts, urban politics, elections, sub-capital cities, and defense walls were important research categories.

Reviewing the researches from 1945 to present, I found eight categories of political geography in Korea: capital cities, administrative districts, geopolitical structure of Korean peninsula, division and unification of Korea, sub-capital cities, defense walls, elections, and urban politics. Each category includes several scholars respectively.

2. Study Tasks and Prospects in Korean Political Geography.

In relation to Korean circumstances, there are three study-tasks. The first task of Korean people is unification of two Koreas. Political geographers of Korea must study ways of the unification. The second is that Korea is worth becoming a sea power state in Pacific rim. Political geographers must study deeply this task. The third one is a social integration between regions especially in southern part of Korea. Political geographers should study the disintegrational causes basically and develop available ways of integration.

Political geographers in this country are worth paying attentions to 'new geopolitics' of the recent times in Europe and America, and studying strategic geography, military geography, and tactical geography for the security of this state which has tensions from surrounding powers.

3. General-synoptic Human Geography: Retrospect and Prospect

The first book for collegians published by Korean scholar after liberation, 1945 was *Human Geography* written by Kyong-Song Kim, Professor of SNU, 1963. After about 20 years, Hong-Sok Oh's *Principles of Human Geography* was published. This book, however, has no comprehensiveness in content composition. The book did not treat political and cultural aspects important in human geography.

In late 1970s, critiques on positive-quantitative analysis in human geography were said frequently in Korea. In the atmosphere continued, two important articles on methodology of human geography were published in 1983. One was Inn Kim's article, and the other Ki-Yeop Choi's. Kim's one was on the value of spatial geography, and Choi's one was on the value of place's meanings. After publishing of these two articles four articles on the methodology was issued from time to time in 1984-1991. In 1986, *Human Geography: Men and Spatial Organization* was published by Inn Kim. This book was a first quantification-oriented one centered spatial organization in human geography in Korea. Weak point of the book is deficiency in

comprehensiveness of aspects in human geography. And in 1988, Dong-Kyu Cho published a book on human geographical survey titled *Survey Methods of Human Geography* for collegians. This book was first one on survey part in Korea. The book, however, is insufficient in comprehensiveness in aspects too.

I think that the important tasks of general-synoptic human geography in Korea are ① publication of comprehensive books of human geography in the aspects and methodologies for collegians and ② acceptance of academic world of human

geography in Korea of variety in methodologies of human geography for future progress.

Key Words: Moon-hwa Pyo, Late 1960s, Geopolitical, Political Geography, Eight Research Categories, New Geopolitics, Military-Strategic Geography, Study of Marine Characters of Korea, Kyong-Song Kim, Non-comprehensive Human Geography, Methodologies of Human Geography, Spatial Geography, Understanding of Place.

김덕현(경상대학교 사회교육과)

“정치지리학과 인문지리학 일반”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치지리학은 [대한지리학회 창립5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인문지리학 제 범주 가운데 잔여 부문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발표자인 임덕순 교수도 정치지리학적 연구에 포함되는 분야를 개념정의하지 않은 채, “연구 내용이 정치지리적인 것”이라고 다분히 자의적으로 검토분야를 설정하였다.

해방 이후의 “장치지리적” 연구 성과를 설립한 끝에 발표자는 그간의 모든 연구를 “양적으로 종합한 결과를 가지고” ‘국내 정치지리학의 8대 연구범주’를 제시하였다. 발표자가 8대 전통이라고도 부르는 것들은 수도, 행정구역, 지정적 구조(한반도), 분단 통일(독일 포함), 각급 행정수도, 성곽, 선거, 도시정치이다. 그러나 이 한국 정치지리학 8대 범주가 일정한 분류기준하에서 선정된 정치지리학적 연구범주 분류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실 정치지리학은 전통적으로 경제지리학, 사회지리학과 함께 인문지리학의 3개 분과의 하나로 구분되어 왔는데, 그 근거는 단지 사회과학을 정치 경제 사회로 구분하는 방식을 모방한 것이다. 정치지리학의 전통은 경제지리학과 사회지리

학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가장 취약한 분야로 지목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정치지리학을 “지리학자가 공간적 관점과 관련된 기법 및 사고를 활용하여 수행한 정치학적 연구”로 정의한 사전적 개념(한국지리연구회 옮김, [현대인문지리학사전], ‘정치지리학’ 항목)도 발표자가 정의한 “정치지리학적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바 없지 않다.

또 정치지리학이 시대적 관심에 따라 연구의 지향점이 크게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발표자가 정치지리학의 향후 과제를 한국의 전망과 관련하여 국토재통일 해양세력화를 위한 지정학 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갈등 등 3가지 실천적 연구로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도 공감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여전히 발표자가 학문적 생애를 통하여 일관되게 추구해 온 정치지리학의 正體를 이 심포지움 발표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제안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재한(청주대 지리교육과)

그간의 연구업적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신 임덕순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정치지리분야에 국한하여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제까지의 연구를 정리함에 있어 너무 “족보케기” 식 나열에 치중한 감이 있다. 한국에서 바람직한 연구방법에 대한 대강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각 연구물의 분석·평가가 이루어졌더라면 보다 좋은 발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발제자가 학문발전에 대해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평가의 기여로 인해 우리의 정치지리 연구현실을 밝히는 데는 미흡했다고 본다. 따라서 과거 연구에 있어 우리가 반성할 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를 유보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둘째, 한국적 정치지리학의 정립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 발제자가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정치지리학은 해방이후 태동하여 학문적 전통이 일천한 연유로 일본·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연구추세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는데 점차 이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

거 우리나라와 밀접한 나라들의 정치지리적 논리들은 나름대로의 “토착성”에 기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과없이 수용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옷을 걸치는 것에 다름없다고 본다. 물론 냉전의 족쇄에서 벗어나 국제적으로 개방과 협력 그리고 경쟁이 공존하는 큰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국제적 환경을 연구함이 필수적이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 사회·정치과정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정치지리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로써만이 우리의 정치-지리적 현실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지리 전공자가 크게 부족한 실정에서 학문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기 나름대로 연구지평을 확대·심화하는 이외에도 동시대인으로서 공통인식의 바탕위에 연구자간 교류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보았다.